

<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

시편 68:19 / 새찬송가 380(통일 424) 나의 생명 되신 주

1.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성실하심과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매 순간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개입하시며 우리 영혼과 육신 구석구석과 세포 하나하나를 다 살피시면서 돌보십니다(마10:29-31). 또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매 순간 변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십니다(애3:22,23).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분을 섬기기 전에 먼저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요일4:9,10).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짐을 맡기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도 오늘 시편 본문에서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성실하심과 사랑하심을 한 구절로 표현했습니다(시68:19).

2. 앞으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처럼 섬세하시고 성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는 그 어떤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반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그 어떤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유혹하여 최악이 역사할 때의 전조증상은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한 미움 분노 원망 불평 음란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 등으로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이런 전조증상은 지금의 상황만 바라볼 때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자 하기 전 내 마음의 전조증상은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이요 위로부터 임하는 완벽한 화평과 고요함입니다(렘29:11), (약3:17,18), (시131:1-3).

3. 앞에서 오는 것과 위로부터 임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 내 마음에 전조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푸른 하늘에 맑은 구름이 피어오르듯이 성령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나타납니다. 이 꿈과 비전은 앞에서 오는 것이니 미래적이고 희망적인 것이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인 만큼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이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골2:28).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일생에 있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완벽하게 의롭게 된 것을 꿈꾸게 되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완벽한 기도를 꿈꾸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조증상은 완벽하지 않은 현실세계의 것을 완벽한 것의 모형으로 보고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천국의 모형이기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완벽한 천국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히9:24), (엡3:20,21). 또 우리 삶이 완벽한 낙원처럼 될 것을 또 현실적인 사람을 이상적인 사람으로 바라보고 만들어냅니다(사11:6-9). 이것이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완벽한 것의 모형을 만드는 것은 이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특권이며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와 같은 전조증상을 내 마음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적용&실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재료로 쓰시고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무릎을 일으켜 세워 기도하십시오.